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음 1월 4일)

제22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올해 농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
68개 사업 2381억원 투자

전북도는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체험관광 활성화·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68개 사업에 2,381억 원을 투자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농촌 관광객 100만 명 달성, 생생마을 885개소 조성, 귀농·귀촌 1만7,500가구 유치, 6차산업 경영체 인증 310개소 달성,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활기찬 농촌! 살맛나는 농촌! 살고픈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생마을 조성을 위해 전북도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 지원과 생생마을 만들기 단계별(기초→활성화→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2019년까지 생생마을 885개소(2017년 69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촌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30명)과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15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농촌 관광객 96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12개소를 모두 완공해 관광객 100만명 유치와 농촌관광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귀농귀촌 유입 강화 및 안정적 정착 확대를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농촌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융화를 위



뽕어(豊魚)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7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뽕어(豊魚)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을 달아 뱃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뽕어제 '뽕어놀이'가 열리고 있다.

(사진=부안군청 제공, 관련기사 8면)

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1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리더 교육(159개 읍면), 귀농귀촌 멘토 전문가 육성(30명), 마을 환경행사 확대(296회), 주거 지원 및 정보제공(495건)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도는 지역단위 6차산업을 주도할 핵심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중점 추진한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2018년말 기준 238개소로 전국 1위를 달성 전국에서 농촌융복합

산업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 밀착형 지원으로 6차산업 우수경영체 육성 및 지속성장 체계 구축으로 6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체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목표로 8개 세부사업 180억원을 투자한다.

농촌중심지 등 활성화 사업, 농촌 마을 만들기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 24개 사업, 1,736억원을 투자해 농촌지역 주민 체감형 지역개발로 생활환경 정비 및 편익을 증진하고 농업의 생산 기반 확충으로 영농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은 2018년 대비 16지구 중액 707억원 공모 선정으로 농촌의 기능회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데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 농촌활력과정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유치원 3법' 논의 진척 없어

2월 임시국회 논의 가능한가

중앙선관위 임명에 반발 한국당 보이콧으로 개회 불투명
교육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과 함께 논의돼야"

지난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선관위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11월 본회의에는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2월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는 부분, 교비를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분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려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감 이후 추가로 파악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달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또한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무산된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초등 1~2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의 몇 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이에 유 부총리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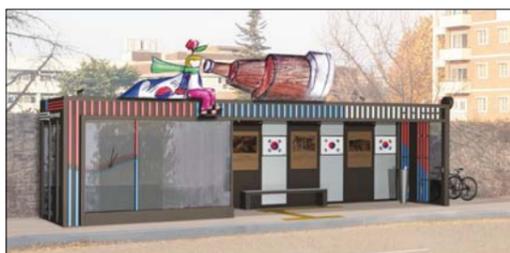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2~13일 법안소위원회와 1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유치원 3법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정은성 기자

오늘 전북 아침 최저 영하 12도

전주기상지청은 7일 오후 11시를 기해 전북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지청은 오는 8일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동부내륙(무주, 진안, 장수, 임실)과 산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서훈 기자



전주 신흥중·고 앞 버스승강장 '3·1운동 승강장' 탈바꿈

전주 지역 3·1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흥중·고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이 3·1운동 기념 승강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국비 등 총 6500만원을 들여 신흥중·고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을 3·1운동 기념 승강장으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학교 앞 승강장을 3·1운동을 테마로한 승강장으로 바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

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예술작가들이 참여하며, 3·1운동의 역사가 담긴 조형물이 설치되고 역사기록 사진과 태극기 등이 부착된다.

또 '1919년 3·1운동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이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해 학생운동을 일으킨 곳'이라는 안내방송도 송출된다.

시는 공기청정기와 미니 도서관, 음수대, 탄소발열의자, 에어 커튼, 교통카드 잔액 표시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대처 福 많이 받으세요

익산시민 여러분! 2019년도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